

Copyright 1986 by J.C. Choate
World Literatures Publication
1988 Dae Jung Church of Christ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목 차

서 론	1
제 1 과	교회 의 뜻	3
제 2 과	교회 의 도래	8
제 3 과	교회 의 설립	13
제 4 과	교회 의 동일성	18
제 5 과	교회 의 이름	23
제 6 과	교회 의 조직	31
제 7 과	입 교	36
제 8 과	교회 의 예배	42
제 9 과	교회 의 사역	48
제 10 과	교회 의 일치	54
제 11 과	교회 의 신 조	60
제 12 과	교회 의 역 사	66
제 13 과	오늘 의 교회	74

성경적인 교회

서론

원래 이 교재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주간 잡지에 매주 한장씩 13주에 걸쳐서 성경통신 과정으로 쓰여진 내용이다. 그 이후에 나는 가능한 한 주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각각의 내용은 전장의 가르침을 전제로 하여 대부분의 중요한 옷점을 망라하는 문제가 나와 있다.

인도 델하이로 옮긴 후에 책의 형태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여러가지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 후에는 스리랑카, 싱가포르, 과테말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남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까지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말씀. 파수리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려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 이 책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주께서는 한 교회를 갖고 계시며, 그 교회는 주의 이름을 갖고 있고, 마땅히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스스로 읽고 공부하라. 그것이 진리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배척해야만 한

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바르게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 읽기를 바란다.

이 책을 공부해서 분명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1986. 10. 28

제이. 씨. 초우트

성경적인 교회

제 1 과 교 회 의 뜻

누구도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며 어느 교회이고 무슨 교회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때에 맞게 해답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찾아 보기를 원한다. 우선 먼저 교회가 무엇이 아닌지를 지적해보도록 하겠다. 성경에서 서술된 교회는 개톨릭교도, 신교도, 유대교도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교파교회가 아니고 통합교파도, 종파교회도 아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고 사교적인 조직도 아니고 세속적인 집회 장소도 아니다. 그러면 이상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목적과 중요성과 교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헬라어로 교회란 말은 *ekklesia* 라고 하며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몸이다. (골 1:13).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며 (고전 12:27),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된다(히 5:8, 9).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신다(막 16:16, 행 2:47).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구성된다.

성서에서 나타난 교회라는 말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교회는 보편적인 의미로 말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실때 생각하신 것이다(마 16:18). 교회라는 말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보편적인 의미로서 교회를 말하는 많은 다른 구절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한 교회이다.

두번째로, 교회는 지역적인 의미로 말해진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때 여러 다른 교회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니”라고 말했다(롬 16:16). 바울은 교파적인 의미로 수많은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의 많은 지역교회를 언급하였다.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은 성경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이다(고전 1:2, 엡 1:1, 빌 1:1).

이러한 모든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파적인 뜻으로만 교회를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파에 대해서는 읽을 수 없다. 앞서 말한 경우에서 성서가 말한 교회들이 있고 각 교회는 특별한 지역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는 함께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 교파주의를 잊고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신대로 교회를 볼때 이 사실은 매우 간단하다.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더 돕기위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교회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그리스도의 몸. 이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엡 5:23). 교회는 한몸이 있을 뿐이다(엡 4:4). 그리고 한몸이 한교회인 것이다(골 1:18).
2. 하나님의 집. 성경에서 집이란 말은 한가족을 나타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딤후 3:15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갈 3:26,27 엡 1:3).
3. 하나님의 왕국(나라). 왕국은 왕을 암시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계 17:14). 왕이 되기 위해서 왕국은 존재해야 되며 존재하는 것이다(행 8:12).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하들이고 세상은 왕국의 영토이고 신약은 왕국의 법이다.
4. 주님의 포도원.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개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지들이다(요 15:1-8). 이런 사고방식은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같이 정의된다. 성서에 비추워서 이 문제들을 공부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아보도록 하신대로 교회를 본다면 여러분의 모든 태도가 바뀔 것이요, 아마도 당신의 생활조차도 바뀌게 될 것이다.

[문 제]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시요.

1. 성경은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2. 교회란 카톨릭 교회를 말한다.
3.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
4. 교회라는 단어는 한가지 의미로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5.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
6.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7개의 분명한 교파들을 의미한다.
7.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8. 한몸이 있다.
9.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10. 왕국은 앞으로 올것이다.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시요.

1. 교회가 아닌것을 몇개 열거하시요.
2. 어떤 헬라어에서 교회란 말이 나왔는가?
3.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4. 어떤 두가지 의미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가?

5. 누가 그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나?
6.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나?
7. 아시아의 7 교회들은 무엇이었나?
8. 얼마나 많은 몸들이 있는가?
9. 누가 왕중의 왕인가?
10. 주님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간단한 정의를 내리시요.

1. 에클레시아(EKKLESIA).
2. 그리스도의 몸
3. 하나님의 집
4. 하나님의 왕국(나라)
5. 주님의 포도원

제 2 과 교 회 의 도 래

교회는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었고 예언되었고 약속되고, 그런 다음 설립된 것이다. 성경은 이 모든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해 있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엄숙히 말하고 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3-6).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전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 보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음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때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을 사소하게 과소 평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둘째, 교회는 꽤 여러번 예언되었다. 이사야는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위에 뛰어

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이사야 2:2,3).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요엘 2: 28,29). 그리고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열왕의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다니엘 2:44).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1. 왕국은 마지막날에 세워질 것이다.
2. 산위에 세워질 것이다.
3.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4. 주께서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5. 제 4 세계제국시대에 세워질 것이다.
6.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것이 어디에서 이루어 지는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 보자.

세째로, 교회는 약속되어 있었다. 요한은 그것이 가까왔다고 말했다.(요 3:2). 이 말은 가깝다. 즉, 곧 설립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

는 사람중에 죽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들도 있느니라”(막 9:1).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불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눅 24:46-49).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주목해 보자.

1. 왕국은 가까왔다.
2.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3.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설립될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4. 교회는 능력과 함께 올것이다.
5. 회개와 죄사함이 만방에 그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다.
6.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7. 사도들은 예루살렘시의 높은 곳에서 부터 능력을 입게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설립에 이르게 될때까지 이 모든 요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모든것이 드러남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펴서 여러번 주의깊게 읽어보자. 모든 성경학자가 인정하듯이 교회는 이때 설립되었다. 더우기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시대는 마지막날 즉 로마제국의 왕 치하에서였다. 능력이 도래했고 회개와 죄사함이 만방에 선포되었으며 그 이후 교회가 존재케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교회는 설립되었고 그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됐으며 그것에 관한 약속은 이행되었다.

[문 제]

1. 교회는 어디에 처음 존재하였나?
2.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는가?
3.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말한 3명의 선지자를 열거하라.
4. 얼마동안 왕국이 지속될 것인가?
5. 누가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을 했는가?
6.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는가?
7.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나?
8. 무엇과 함께 왕국이 도래한다고 했는가?
9.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선포된다고 했는가?
10. 어디에서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가?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1. 교회는 계획되었고 예언되었고, 약속되었고, 그 다음에 설립되었다.
2.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부터 비롯되었다.
3. 요한은 왕국이 가까왔다고 말했다.

4. 왕국은 능력과 함께 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5. 회개와 죄사함은 만방에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게 되어 있었다.
6.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있었다.
7. 행 2장은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8. 이것은 로마제국의 왕들 치하에서 였다.
9. 마지막날은 이미 시작되었다.
10. 예언들과 약속들은 성취되었고 이행되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요.

1. “ _____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2. 여호와의 전의 산이 _____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
라.
3.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4. “내가 _____ 세우리니
5.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하는 회개가
_____ 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것이 기록되었으니

제 3 과

교 회 의 설 립

지난과에서 우리는 이사야 2:2, 3 절, 요엘 2 장 28 절, 29 절, 다니엘 2:44 로부터 주님의 왕국(즉 교회) 이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때 세워질 것이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그 왕국이 영원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18 절, 마가복음 9:1 절, 누가복음 24:46-49 절에서 친히 그 분이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회개와 죄 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열국중에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제 사도행전 2 장을 참고함으로 우리는 오직 이장에서만이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약속들이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 장을 읽을때 우리는 사도들이 이때에 예루살렘성에 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순절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 부터 급하고 강한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행 2:1-6). 그 기록은 계속해서 참석한 여러 나라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어떤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저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행 2:12-17, 21).

베드로는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들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밝히 말한후 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행케 하신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공회에 잡혀 내어준바 되어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는가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듣는 무리들에게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으심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

수로 네 발등상 되게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이 정녕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수가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32-41, 47).

앞의 성경말씀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위에 부어진바 되었다. 이 사건은 구약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리라고 말한후, 그리고 베드로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했을때 교회가 말세에 세워졌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었던 그날 모든 족속들이 한자리에 함께하여 약 3,000여명이 순종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 교회의 수에 더해졌다. 그리스도께서 A.D. 33년에 예루

살렘 교회를 세우신 이후 교회가 계속 존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 제]

누가 한 말씀인지 말해 보시오.

1. 누가 자기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는가?
2.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누가 말했는가?
3. “주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고 누가 말했는가?
4.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고 누가 말했는가?
5.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고 누가 말했는가?

예언의 말씀을 적으시오.

1. 언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예언되었나?
2. 어느곳에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었나?
3.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인가?
4. 그 나라가 무엇을 가지고 임하겠는가?
5. 그 나라가 얼마동안 서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2. 그것의 표적은 어떠하였는가?

3.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확신을 심어주었는가?
4.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5.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교회에 더하였는가?

다음 말들을 정의하시요.

1. 교회
2. 예언
3. 오순절
4. 회개
5. 침례

제 4 과

교회의 동일성

여러분은 오랫동안 잃었던 친구가 어디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어떻게 일을 시작하겠는가? 당연히 여러분은 신분의 동일함을 나타내는 모든 특징을 모은 다음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신분의 동일성을 지닌 모든 특징들과 부합되는 사람을 찾은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를 여러분이 찾고 있던 친구로 맞이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어떤 교회가 올바르게 참된 교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선 여러분들은 동일성의 모든 특징들과 여러 교회들을 그 특징에 비추어 비교하여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동일성을 지닌 모든 특징과 부합되는 교회를 찾은 후에야 비로소 참된 교회를 발견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성을 지닌 특징이 무엇일까? 그 특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이 그 질문의 답이다.

성경은 교회의 동일성의 참된 특징들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2. 교회는 예수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45-49절과 사도행전 2:5에서 볼 수 있다.

3. 기원의 연대는 A.D. 33년이었다. 이 사실 또한, 오순절날에 세워진 교회로서 사도행전 2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입었다. 바울은 여러 회중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편지를 썼다(롬 16:16).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할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고 또한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몸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다 (엡 1:22,23).
5. 그 몸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일컬어졌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 11:26),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행 26:28).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벧전 4:1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
6.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자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 1:18).
7. 교회는 오직 하나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 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다(골 1:18). 그러므로 몸이 하나이요, 그 몸이 바로 교회라면 오직 한 교회만이 존

재할 뿐이다.

8. 입교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은 믿음(히 11:6), 회개(행 17:30), 신앙고백(롬 10:9,10), 그리고 세례(막 16:16) 등이 포함된다. 일단 어떤 사람이 구원 받으면 바로 교회에 더해진다(행 2:47), 또한 로마서 6:3,4, 갈라디아서 3:26, 27 고린도전서 12:13에서 세례를 받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곧 그 나라로 태어난다고 한다(요 3:3-5).
9. 교회의 예배는 독특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행 20:7), 찬송하고(엡 5:19), 기도하고(행 2:42), 성경을 공부하고(딤후 2:15),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고전 11:), 연보를(고전 16:2) 해야 한다.
10. 교회의 교리는 오직 성경에만 근거를 둔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계 22:18,19, 갈 1:11-16). 성경은 교회의 유일한 신조이다. 성경외의 책이나 신조는 배제된다.
11. 교회의 조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시고(엡 5:23) 각 교회마다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딤후 3: , 딤후 1:) 주님의 교회에는 어떠한 세상적인 우두머리나 본부가 없으며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국가나 혹은 국제적인 조직 또한 없다.
12. 교회의 사명에는 세가지가 있다. 그 복음을 전하고(마 16:15,

16), 끈궁한 자들을 돕고(갈 6:, 약 2:)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히 3:12-14).

13.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요일 2:15, 약 4:4).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갈 5:22, 23). 신실한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계 2:10).

바로 이들이 참된 교회의 몇가지 특징들이다. 이들은 모본인 성경으로 부터 취해진 것들이다. 여러분의 교회를 이들과 비교하여 보라. 예를 들어 첫 네가지를 살펴보자. “내가 다니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세워졌는가? 그 다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졌는가를 물어보라.

A.D. 33년 이후에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물어 볼 수 있지만 위의 질문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주님에게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여러분은 또한 다른 교회들도 이러한 동일성을 지닌 특징들에 비추어 그 교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혹시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그곳을 떠나서 진리를 알고, 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교회에 더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이 있는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문 제]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시요.

1. 어떻게 오랫동안 잃었던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2. 오늘날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가?
3. 어떤 교회가 참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 어디에서 동일성을 지닌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5.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6.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7.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8. 교회의 이름을 적으시오.
9. 몸이란 무엇인가?
10. 지체를 가리켜 무어라 불렀는가?
11.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12. 교회는 몇 개 있는가?
13. 교회에 입교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적으라.
14. 어떻게 그리스도와 합한자가 되고 입교할 수 있는가?
15. 예배의 활동을 열거하시요.
16. 교회의 교리는 무엇인가?
17. 각 회중이 가져야 할 것을 말하라.

18. 세 가지의 교회 사명을 말하십시오.
19.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0.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가?
21. 어떤 교회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22. 어떤 교회가 그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주님에게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23. 어떤 교회의 시작이 A.D. 33년 이후라면 그 교회는 주님에게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24. 어떤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주님에게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25. 만일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어떤 교회에 더하시겠는가?

제 5 과 교회의 이름

교회가 성경에 기초를 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이름 또한 성경에 기초를 둔 이름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많은 이름과 명칭을 가지고 있는 소위 사람이 만든 교회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이름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이들중 어떤 이름은 “루터교”와 같이 설립자를 존경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어떤 이름들은 침례, 곧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의식같은 어떤 교리를 높이기 위해 지어졌다. 어떤 이름들은 오순절이나 안식일같은 어떤 특정한 날을 영화롭게 하기위해 지어졌다. 또한 어떤 이름들은 장노의 직분을 강조함으로써 치리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와 그외 언급될 수 있는 다른 교회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영광, 찬양, 명예들을 빼앗아 사람으로 비롯된 이름, 명칭, 설명에 다 붙인 것이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나 명칭들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그릇된것이다. 첫째로 이들은 분열을 야기시킨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별을 원하지 않는 곳에 구별을 만든다. 이로인해 사람과 사람사이에 분열을 가져온다. 이들은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거역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이 지은 이름이나 명칭들은 성경에서 정죄함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10 절로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형제들에게 사람의 이름을 입음으로 해서 당과 분파로 나누워지는 그릇됨을 가르

쳐 주었다. 세째로 사람의 이름에 관해 읽을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 네째로 사람이 지은 이름과 명칭은 그릇 인도하고, 혼란시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된다. 이들로 인해 불신이 초래된다. 다섯째로 사람이 지은 이름이나 명칭들은 입고있는 모든자들과 그들로 인해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자들은 잃어버린바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람이 지은 이름이나 명칭은 그릇될 뿐 아니라 죄가된다.

교회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다 (마 16:18). 그리스도께서 자기피로 교회를 사시고(행 20:28)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가 되시고(엡 5:23)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골 1:18)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를 세우시고 구세주 되시고 머리되신 분을 위해 오직 그의 이름을 옷입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문안을 보낼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롬 16:16)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말을 할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고전 12:27)고 했다. 그러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엡 1:23)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단순히 말을 했다. 몸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고전 1:2 행 20:28), 하나님의 나라(고전 6:9), 그리스도의 나라(엡 5:5),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골 1:13), 우리 주의 나라(벧후 1:11), 교회(행 13:1),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딤후

전 3:15), 장자들의 교회(히 12:23) 등으로 불리워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하나의 독점적인 이름이나 묘사된 말들로 불리워지지 않는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 역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것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이름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가르친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겠는가? 더욱이 교회의 이름 모두가 이러한 독점적인 이름과 묘사된 말들로 되어있다면 그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 주님의 교회로서 다른 이름을 택하고자 참으로 갈망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서 부르는 대로 교회의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될 것이다.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에 관해 말하자면 성경은 그것 또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정하시리라고 말했다.(사 62:2). 그 이름이 여러해 후 바울에 의해 전해졌지만(행 9:15), 그 이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할때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모든것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을때 비로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다(행 11:26). 둘째로 우리는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말씀을 전할때 아그립바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행 26:38)라고 말하여 답하는 장면을 읽을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 4:16)고 말한것을 읽을수 있다. 그러므로 신약시

대에 그리스도의 도를 좇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들 뿐이었음이 분명하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와 똑같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다 다른 어떤말을 덧붙인 이름이나 명칭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을 나머지 세상사람들과 구별시켜 준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주님이 원하신다.

교회의 이름에서나 성도들의 이름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요 (엡 3:14-15),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빌 2:9-11),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일 5:13), 주의 이름을 부르고 (딤후 2:19), 회개하여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행 2:38),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고 (마 18:20),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을수 있다 (요 20:30,31)

앞의 말씀을 염두에 둘때, 누구도, 이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에는 구원이 없음이 확실하지만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로 인해 잃어버린바 된 자가 될 것이다.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문 제]

다음 빈란에 합당한 말을 채워 완성하시요.

1. 교회는 성경에 기초를 둔 _____ (이)가 있어야 한다.
2. 사람이 지은 이름이나 명칭은 _____
3. _____ 의 기도는 _____ 을(를) 요구한다.
4. “너희는 _____ 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5.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_____ 을(를) 주실 것이며,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시요.

1. 교회가 성경에 기초를 둔 교회가 되려면 성경에 기초를 둔 이름
이 있어야 하는가?
2. 사람이 지은 이름이나 명칭들은 그릇된가?
3.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는가?
4.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모두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갖기를 원하
실까?
5.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옷입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가?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시요.

1. 사람이 지은 이름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2. 왜 사람이 지은 이름과 명칭들이 그릇된지 몇가지 이유를 열거
하시요.

3.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4. 바울은 그 형제들이 당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5.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옷입어야 하는가?
6. 로마서 16:16 절을 인용하시요.
7. 고린도전서 12:27 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가?
8. 교회의 몇가지 다른 이름을 적으시오.
9.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겠는가?
10.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불리워졌는가?
11.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인용 말씀을 세가지 적으시오
12.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되길 원하실까?

13.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14.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가?

15.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는가?

제 6 과

교회의 조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마 16:18). 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골 1:13,14), 교회는 구원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행 2:47). 교회는 그의 영적인 몸이며(골 1:18), 오직 하나뿐이다.(엡 4:4).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지만 수백, 수천개의 개별적인 회중으로 이루어지고 각 회중은 개별적인 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회의 치리가 지역적인 것이지, 국가적이나 국제적이 아님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땅에 속한 머리나 본부를 갖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가르쳐 주고있다. 다음 성경말씀을 잘 주시하여 보자. “또 그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 1:22-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엡 5: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이 구절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임을 가르쳐 준다. 몇개의 머리가 있는가? 오직 하나다. 그리스도만이 다른 어떤 누구와도 그 자리를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머리이다. 교회가 많은 지역회중으로 이루어지므로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

문에 그분이 교회의 각 성도들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각 지역 회중 혹은 지역교회의 머리이심을 의미한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고전 11:3)고 말을 했다.

다음에 각 지역 회중은 각기 자기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의 영적 및 물질적인 필요를 보살피기 위해 지체들 가운데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임명해야 한다. 집사들은 물질적인 면을 보살피야 하는 한편 (행 6:), 장로들은 지체들의 영혼을 보살피야 한다.(히 13:7), 성경은 항상 각 교회위에 장로들과 집사들과 같이 복수로 말하고 있지 그들을 다스리는 한 장로와 한 집사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또한 주목하라. 또한 다른 교회나 여러교회들을 다스리는 한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이 없다. 교회들은 서로 서로 친교를 해야하지만 서로 다스리려고 해서는 않된다.

장로, 목사, 감독과 같은 말들은 모두 같은 직분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장로가 곧 목사, 감독등이다. 디모데전서 3:1-7에서 바울은 갖추어야 할 여러 자격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다.”미쁘다 이 말이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집을 다스릴줄 알지못하면 어찌 하나

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 이러한 자격 조건들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느 누구나 장로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자격이 갖추어진 자가 없는 교회에서, 성도들은 장로가 임명되기에 충분히 자라고 발전할때 까지 사무적인 일을 돌보아야 한다.

장로들과 함께 봉사할 집사들 또한 임명되어야 한다. 그들은 충실한 증으로 알려져 있기에 각 지역 장로들의 지도하에 일해야 한다. 바울은 그들의 자격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 (딤후 3:8 - 13).

이것이 교회의 거룩한 조직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이에 각 교회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둔다. 그들의 권위아래 복음 전하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과 성도들이 있다. 주님의 길에는 한 교회가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들은 계속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교회의 조직에 대한 주님의 계획가운데 각 교회는 다른 교회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각 교회는 사람이 만든 범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교회와 교회 사이에 친교가 있어야 하며 함께 봉사해야 한다. 주님의 길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수 없다. 베드로나 어떤 다른 사람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성경 어느곳에서도 읽을수 없다. 감독이 교회의 성도들 위에서 다스리거나 목사(설교자)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성직자나 평신도라는 말도 성경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종교계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에서 떠나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많은 분열이 있을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조직의 진정한 성경적 모본을 갖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결정하자.

[문 제]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십시오.

1.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2.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그리스도의 몸은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4. 교회는 몇개인가?
5. 교회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6. 교회는 수백수천의 개별적인 _____ 으로 이루어져 있다.
7. 교회의 치리는 지역적인가, 국가적인가, 국제적인가?
8. 주님의 교회가 지상적인 머리 혹은 지상적인 본부를 갖고 있는가?

9.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10. 지역교회의 지도자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1. 장로와 집사의 사역은 무엇인가?
12. 각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와 집사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13. 장로의 다른 명칭은?
14.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된 곳은?
15.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16. 교회는 임명할만한 자격있는 지체가 없음에도 장로나 집사를 가질 수 있는가?
17. 이러한 경우에 누가 교회를 인도하는가?
18. 어떻게 교회들이 결속될 수 있는가?
19. 하나님의 조직의 모형은 개선될 수 있는가?
20. 성서에 따르면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21. 교회내에 감독이라고 불리는 한사람이 많은 지역교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에 있는가?
22. 목사가 한 교회를 다스린다고 성경에 있는가?
23. 성경에 성직자와 평신도에 관하여 적혀있는가?
24. 세상에는 왜 많은 분열이 있는가?
25. 교회조직의 모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 7 과 입 교

지금까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엡 5:23),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셨으며 (행 20:28), 구세주가 되신다는 (엡 5:23)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 된다. 이러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중요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무가치한 교회를 사기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는가? 만일에 사람이 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구세주 일수가 있겠는가? 분명히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교회가 중요치 않은 것이며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가? 이는 단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되도록 속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은 교회가 구세주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으나, 동시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와야 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방주가 구세주는 아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주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교회에 더하시는 것이다. 오순절과 그 다음 여러날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했을 때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는 주님의 교회에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만일에 구성원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밖에는 구원받은 존재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교파나 인간의 종파에 소속된 구성원이 되지 않고 구원 받을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이 됨이 없이는 구원받을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면서도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신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그의 교회에 더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오직 구원받은 자만을 더하시므로 자연히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님은 사람이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기위해 사람의 행동을 낱게하는 마음과 동기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성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에 더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록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도 교회에 더해질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순종의 행위를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만일에 사람이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들의 동기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각자각자를 더하시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주님은 누가 구원받을자며 누가 단지 형식만 갖추는자인지를 구별하는데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세주로서 오직 구원얻을 자만을 교회에 더 하신다면 교회에 들어갈수 있도록 어떤것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당연히 알기를 원할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여러 개종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해진다. 여기서 주의 교회에 들어가는 구체적 용어와 단계에 주목하기 바란다.

1. 진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2.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3. 죄를 회개해야 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눅 13:3).
4.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사람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 10:32).
5.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세례는 물속에 장사지내는 것이다. (롬 6:3,4 행 8:26-39).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6).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행 2:38).

우리가 이 과 앞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주께서 구원 얻은 자를 교회에 더하심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때 구원받는 것이며 자동적으로 교회에 더해진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듣고 믿으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음

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았다. 개인이 이렇게 할때 그는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수 있는 계획이며, 그러면 주께서 교회에 구원 얻는 자를 더하시는 것이다. 간단하지 않은가?

그것을 달리 표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라고 말씀한 것이다 (요 3: 3-5). 그러나 무엇이 그 나라인가?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마 16:18-19). 그러면 주께서 교회에 들어가는 길을 두가지로 말씀하신 것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며 가르침에 순종),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된다고 말한다 (고전 12:13). 그러나 무엇이 몸인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골 1:18).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가? 하나뿐이다.(엡 4:4,1:22,23). 어떻게 들어가는가? 세례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다 (막 16:16).

그것은 고린도인들이 행하던 것이다(행 18:8). 그러므로 사람이 세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가면 그는 교회의 일부가 되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 받는길은 오직 하나이며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교회에 더하신다. 당신은 성경에서 읽을수 있는 교회의 구성원인가? 그렇지않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조사해 보고 연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개인적으로 당신을 교회에 더해주시실 것이다.

[문 제]

다음 질문에 바르게 답하시오.

1. 교회에 대한 이 과의 공부에서 무엇을 고찰했는가?
2. 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3. 교회는 무엇으로 산 것인가?
4. 누가 교회의 구세주인가?
5. 교회가 중요함을 어떻게 아는가?
6.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중요치 않다고 하는가?
7. 교회가 구원할 수 있나?
8.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가?
9.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했는가?
10. 방주밖에 어떤 구원이 있었나?
11. 누가 구원받은자들을 교회에 더하는가?
12. 이를 가르치는 성경구절을 말하라.
13.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가?
14.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가?
15. 입교하기 위해서 취해야할 5 가지 단계는 무엇인가?
16. 이 명령들을 순종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17. 세례란 무엇인가?

18.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19. 나라(왕국)는 무엇인가?
20. 사람이 나라에 들어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21. 몸이란 무엇인가?
22. 얼마나 많은 몸이 있는가?
23. 어떻게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24.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25. 교회에 들어가는 길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 8 과 교 회 의 예 배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7).

신약에서 언급된 예배는 세종류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무지한 예배에 관하여 읽을 수 있다. 바울이 아덴에 있을때 주위에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하리라” (행 17:23). 당시에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상과 형상에게 절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의 무지로 부터 다양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둘째로 주님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셨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 15:9).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셋째로 주님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읽을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썬니라” (요 4:24).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당시와같이 오늘도 똑같이 사실인 것이다. 그것은 영 (겸손과 이해) 과 진리 (기록된 바와같이) 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예배를 강요하지 않으시나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에 어떤 예배가 있어야 하는가? 물론 무지한 예배도 아니다. 사람의 교리나 계명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이어야 한다. 신약 성경의 페이지를 넘길때 우리는 초대교회가 다음의 다섯항목으로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직접적인 명령과 예로서 알수있다.

1. 그들은 공부하기 위해 모였다. 비록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지만 (딤후 3:15) 바울은 그를 젊은 전도자로써 권고하고 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자로 자신을 하나님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때 적용되는 말이다. 이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다. 사도행전 20:7 에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강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그들은 기도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수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

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2).

주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할 기회를 갖게된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3. 그들은 찬양했다. 바울은 그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 5:19). 또 골 3:16 과 히 3:15 을 읽어보라. 두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다. 하나는 음성으로 하는 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적인 음악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악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음성으로 하는 음악을 요구하신다.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기계적인 음악을 배제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수세기 후에 사람들은 기계적인 음악을 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으셨고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기계적인 기도를 할수 없는 것과 같이 기계적인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수는 없는 것이다.
4. 그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였다. 사도행전 20:7 에서 그 예를 볼수 있다. 마태복음 26:26-28 과 고린도전서 11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에 참여하며 피를 기념하는 잔, 즉 포도 열매에 참여하라는 것을 볼수 있다. 이는 오늘까지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다.
5. 그들은 헌금을 드렸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명령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때에 연보를 하지않게 하라” (고전 16:2). 또 고후 9:7을 읽어보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에 모여서 (행 20:7, 고전 16:2)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받았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관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은날 같은 예배의 행위에 참여해야 하므로 똑같은 훈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예배는 복잡하지 않고 적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함 때문에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배가 많은 전통과 형식으로 단조로운 활동과 기도의 반복이 거듭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사람이 조금도 변경해서는 않되게 하셨다. 더 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주님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의 백성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에 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문 제]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시오

1. 교회는 무엇으로 되어있는가?
2.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4. 신약에서 찾아볼수 있는 예배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 ?
5. 바울이 많은 우상을 본곳은?
6.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 했는가?
7.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오늘도 있는가?
8. 누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헛된것이라고 했나?
9. 왜 그들의 예배가 헛된 것이었나?
10. 성경의 예를 들어라
11. 오늘날에도 주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12.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13. 요 4:24 를 인용하라?
14.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15.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16.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형태는 무엇인가?
17. 주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읽을수 있나?
18. 예배의 5 가지 항목은?
19.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0.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수 있는가?
21. 2가지 종류의 음악이란 무엇인가?
22.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음악의 형태는 무엇인가?
23. 주의 만찬이란 무엇인가?
24. 주의 어느날 기독교인이 모여야 하는가?
25. 하나님의 예배 계획이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있나?

제 9 과

교 회 의 사 역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로 교회는 학교나 병원을 운영하는 세속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파는 사업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그와같은 일에 종사할 권리가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사역은 아니다. 더욱더 많은 종교계가 그러한 활동들에 전념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과 사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교회의 사역이 세 가지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 복음을 전파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 16:15-16). 후에 바울은 짧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전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다른 성경구절들을 들수도 있지만 이와같은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이 가르쳐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구성원들은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행했다. 그들은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을 예로들자면 이러한 예들로 가득차 있다. 모든 개종의 경우에 있어서 설교자는 주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가까이 있었다. 사도행전 2장, 3장, 9장, 10장, 16장을 읽어보라. 그러나 누가 설교하고 가르쳤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대 박해가 닥쳐온 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행 8:4).

다음, 그들은 무엇을 전했다? 다시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모든 개종의 경우를 읽으면 스스로 찾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의 방법, 교회의 중요성, 예배의 항목들, 기독교의 삶의 중요성들이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사실 이외에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말했다(롬 10:17).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 8:32). 또 “그러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4) 라고 했다.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이 잃어버린바 되어서 (롬 3:23,6:23),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하고 (롬 5:8), 사람에게 구세주가 있으며 (요 3:16),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롬 1:16,17막 16:15,16).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순종치 않는자는 잃어버린자 되고 말것이다 (살후 1:7-9).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만 한다.

2. 궁핍한 자를 도와줌

우리는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도울수 있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예를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수 있다. 사도행전 2:45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람의 필요를 따라나뉘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자유의지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사도행전 6 장에는 헬라과부들이매일의 구제에서 무시됨으로 헬라사람과 히브리사람간에 벌어진 분쟁을 읽을수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이 교회의 사역 중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일곱을 택하게 했다.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그곳에가고 있는 것을 읽을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사람이 이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때에 연보를 하지않게 하라 (고전 16:1,2).

누가 도움을 받는가? 첫째로 교회내에 어려운 사람들이다. 즉 가난한 사람, 노인, 과부, 사고를 당한 사람 그리스인도들의 고아 등이다. 갈라디아서 6:10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이에게 착한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을 받을수는 없다. 딤후 5장은 스스로 도울수 없는 자로서 도움을 줄수 있는 친척이 없고 충실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돈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는 안되고 분별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교회가 도울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만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야고보서 1:27장과 2장을 읽어보자.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금이 나와야만 하는 것인가? 자발적으로 내는 성도들로 부터이다 (고전 16:1,2 고후 9:6 7). 이는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궁핍한 사람을 돕는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뜻한다.

3. 교회의 덕을 세움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며 힘을 북돋아 주며 돕는다는 말이다. 무엇이 덕을 세우

는 것들인가? 하나님의 말씀, 교제, 예배 참석, 남을 도움, 선행 그리고 사랑 등등이다. 행 9:31 롬 15:19 고전 14:26, 고후 12:19, 엡 4:12.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인 조직없이, 교회의 머리로서 인간을 세움이 없이 그리고 특별한 모금 없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며 그의 사역을 행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므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을 이룰 때만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성원들이 가능케 하는 그들의 수단을 아낌없이 바칠 때만이 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전파, 궁핍한 사람을 도움, 구성원들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마침내는 이러한 모든 일로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에는 이일 이외에 다른 어떤 일도 없다. 정치, 사업 그리고 단순히 사회조직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몸이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에게 봉사하고 순수하며 거룩하게 남아서 모든 구성원들의 구원에 이르며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임무이다.

[문 제]

1.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업체와는 다른가?
2. 이득을 얻기 위해 종교계가 여러 종류의 사업에 관계하는 것은 죄인가?

3. 교회의 사역은 무엇인가?
4. 마 28:19,20, 막 16:16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5.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외로 흩어졌을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6. 그들이 전파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
7.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8. 무엇이 자유케 하는가?
9.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10. 누가 잃어버린 존재가 될것인가?
11.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12.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했는가?
13.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14. 어떤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15. 도움을 주는 한계는?
16. 교회밖에 있는 사람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17. 궁핍한 사람을 돕는 기금은 어디서 오는가?
18. 언제 기금을 모금해야 하는가?
19.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를 정의하라.
20. 덕을 세우는 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21. 어떻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실수 있는가?

제 10 과 교회 의 일 치

오늘날 종교계는 다른 어느때보다도 교회 일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회일치 운동이 어느 곳에서나 사람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다. 이에대한 이유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종교 분파가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대해 싫증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일치를 거부하는 종교단체들로서는 일치가 결코 이루어 질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통일 혹은 조화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분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해답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성경 자체에 있다. 진정한 일치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은 그들의 가르침, 교리, 명칭, 교회들, 신조등을 내려놓고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며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러할때 요한복음 17에서 주께서 기도하신 진정한 일치가 있을수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행할때 모두 같은것을 믿고, 같은 가르침을 따르며, 모두 같은 이름을 갖게되고 모두 같이 일하며 모두 같은것을 가르치며 함께 천국에 가게 될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시작할때 일치가 이루어 지는것은 간단할 것이다.

성경은 분열을 정죄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형제간에 분열과 불일치를 심는자를 증오하고 계심을 볼수 있다. 이러한 일을 칭찬하는 대신 바울 사도는 그 원인이 되는 뿌리를 제거키 위한 직접적인 단계를 취할것을 가르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말을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

하라” (고전 1:10). 그 다음에 바울은 세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그중의 하나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까지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분열된 상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언급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롬 16:17, 18). 골로새서 2:20-22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하는 것이니 (이 모든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마 15:9)

이 모든것들은 사람들의 가르침, 교리와 사람들의 계명들, 사람을 높이며 성경이외의 다른책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으로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일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갖고 즐길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0-21). 그리스도께서 불가능한 것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일치는 가능한 것이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이다. 사람이 만든 가르침은 우리를 분열시키나 성경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1-6에서 일치를 위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간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믿음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일치를 위한 간구임을 유의하라 또 각기 열거한 것들이 오직 한가지만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 누가 한개 이상 있다고 한적이 있었는가?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다(마 16:18). 이것은 하나를 의미하는데 영적인 몸이며(고전 12:27),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전 1:18). 분명히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두개의 몸과 두 머리를 가지신 분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되어 있다(딤후 3:15). 얼마나 많은 집들 혹은 가족들이 있는가? 물론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볼 수 있다(요 3:3-5, 골 4:11, 딤후 6:15). 주님이 갖고 계신 얼마나 많은 왕국과 왕들이 있는가? 각각의 경우에 하나 뿐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성경은 분열을 뜻하는 교파주의의 사상에 배치되고 있다. 반면에 성경은 일치, 단일성, 완전성, 전체성을 묘사하고 있다. 성경은 교회를 그들의 믿음과 의식에 상관없이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신비적인 몸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에 속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자, 즉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도, 그 교회도 나뉘질수가 없다. 분열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배치되는 것이다.

[문 제]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십시오

1. 오늘날 교회의 일치에 관한 간구가 있는가?
2. 일치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3. 불일치에 동의하는 종교단체들로서 일치가 올수 있는가?
4. 일치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5. 일치를 위해서 사람이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6. 누가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는가?
7. 일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8. 성서는 분열을 정죄하는가?
9. 주님이 증오하는 것은?

10. 고전 1:10 을 인용하라
11.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12. 어떤 단체의 사람을 주의해야 하는가?
13. 그들은 누구를 섬겼는가?
14. 우리가 그들을 피해야만 하는가?
15. 주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16.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
17.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18. 일치를 위한 공식을 들어라
19.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가?
2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얼마나 되는가?
21. 교회는 무엇인가?
22. 누가 머리가 되는가?
23. 그리스도께서 한개이상의 몸과 머리를 가지실 수 있는가?
24. 주님은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는가?
25.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열케 하는가? 일치하게 하는가?

- 22.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 23.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 24. 교회는 세상에 소속된 것인가?
- 25. 교회는 정치, 사업등이 무엇과 무관한가?

제 11 과 교 회 의 신 조

신조라는 단어는 라틴어 Credo에서 온 것으로 “믿음, 종교적인 믿음의 권위적인 규칙; 즉 종교적인 신앙의 어떤 형태 혹은 고백; 선포된 혹은 고수하는 원리나 의견의 요약”으로 정의된다. 우리가 신조를 생각하면 흔히 “사도신경”이나 니케네 신조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둘다 성경에서 찾아볼수가 없다. 게다가 인간이 만든 교회는 안내서, 계율, 신앙 고백등의 형태로 그 교회자체의 인간이 만든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진 것들이다.

성경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신조서는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하의 것들을 담고 있는 어떤 신조서도 너무 적은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성경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신조서는 무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계 22:18,19 과 갈 1:6-9 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셔도 또는 제하거나 뺀것으로 바뀌셔도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온전하며(딤후 3:16-17), 완전하고(야 1:25),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것 같이 해야한다(벧전 4:11). 따라서 성경이외에 어떤 책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오늘날 종교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자체의 일련의 규정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 자체가 곧 성경을 배척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인가? 우리

의 간구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분열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연합케 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에서 신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가 없으며 성경이외에 어떤 신조서도 없다. 종교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과 사상은 무익한 것이다.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해놓은 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은 성경뿐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지시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간구는 모두 성경을 읽고, 공부(요 5:39, 딤후 2:15) 하는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그밖의 책이나 어떤 다른책이 없다. 우리는 성경에 필적하는 규칙과 규정을 기록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러한 책을 쓰도록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으리라고는 믿을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우리를 구원할수가 있다. 더구나 마지막날에 우리를 심판하실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요 12:48). 이 이유와 그밖에 다른 많은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종교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지침으로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격려한다.

성경은 진리이므로(요 17:17, 8:32),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야만 한다. 진리의 원천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할수 없다. 따라서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진리를 들어야 한다(롬 10:17). 대

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들로 미혹을 받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종교계에 그토록 많은 분열과 혼란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주님대신에 인간에게로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성경의 기록된 말씀 대신에 사람의 가르침에게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고무한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교회들이 있다. 어떤 것이 옳은가? 각각의 경우를 위해서 따로 연구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한번 주님의 교회에 관한 진리를 배운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구원받는 길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믿으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고 간단히 말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막 16:15,16, 행 2:38). 사람이 말한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듣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예배에 많은 양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한가지 길이 있음을 가르치며, 주님은 그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 그리고 경건함에 관련된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그에 대한 진리를 얻기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사람은 성경은 이해될수가 없고 특히 똑같이 이해될수가 없다는 인상을 남기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귀는 사람이 잃어버린 존재가 되게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믿고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지침이 되게해야 하는 것이다. 오직 그때에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신조는 무엇인가?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다. 그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말씀이 최종적인 것임을 믿는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만을 따라간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것을 행하도록 촉구한다. 사람의 신조들은 지옥이라는 한곳 밖에는 인도할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 14:6)

[문 제]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십시오.

1. 신조를 정의해 보라.
2. 사람이 만든 교회(교파)는 모두 무엇을 행하는가?

3.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라.
4. 성서는 온전한가?
5. 완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6.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7. 다른 책이 더 필요한가?
8. 왜 오늘날 종교계는 분열되어 있는가?
9. 성경이 우리를 분열케 하는가?
10. 주님의 교회의 신조는 무엇인가?
11.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과 사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12. 우리가 자신의 사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13. 성경에 필적하는 책을 쓸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14. 주님께서 누구에게 책을 쓰고 그것이 성경에 필적하다고 주장할 권리를 주셨는가?
15.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오는가?
16. 마지막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17. 진리란 무엇인가?
18.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19. 교회에 관한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어떤 책으로 돌아가야 하나?
20. 구원받을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가?
21.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가?
22. 주님께서 사람이 예배 드릴때 행해야 하는 것을 계시해 놓으셨는가?
23. 성경은 이해될수 있는가?
24.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가?
25.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제 12 과 교 회 의 역 사

사도행전 2 장에는 주님의 교회 혹은 왕국의 설립 즉 시작의 무대가 설정되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령이 그들위에 내려왔다. 오순절을 위하여 여러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사람들이 참석하게 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것이 요엘 선지가 말한 것의 성취라고 선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마지막날이 시작되었음과, 회개와 죄사함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3000 명의 사람들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세례를 받아서 주께서 그의 교회에 더하셨다. 그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행 1:8, 마 28:19, 20 막 16:15, 16, 골 1:23).

교회는 사도들의 시대에 번성하였다. 교회는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바울은 개종한 후에 3 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수 많은 개종자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박해가 있었던 이유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첫째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이 박해의 이유로 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서 말씀을 어느 곳에서도 전하게 되었다(행 8:1-4).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로마는 그들의 많은 문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로마에 있는 원형경기장과 로마가 통치한 세계의 전 지역에서 조롱거리를 만들며 처형했던 것이다. 마침내 바울은 수감

되어져서 재판관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되었다. 세상 역사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수백, 수천, 아마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직 성장하고 흠어지게 되었다.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은 박해가 아니라 교회 자체내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바울 사도는 배교하는 날이 올것을 예언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오류속으로 떨어질것을 말했던 것이다. 그가 한 말을 주목해 보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자의 입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

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12). 바울이 이러한 악이 당시에 벌써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딤후 4:1-3).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할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행 20:28-31).

바울이 경고한 대로 교회내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다. 세상 역사는 배도하는 일이 교회의 통치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님의 계획은 개 교회가 장노들과 집사들로서 다른 것들로 부터 독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많은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한명의 장노 혹은 감독을 세우게 되었고 마침내는 이러한 감독들 중에서 여러 교회들을 치리하는 한명의 감독을 임명케 해서 그 결과로 전 교회를 치리하는 한 명의 감독이 임명케 되었다. 물론 이것은 하루 저녁에 된 일은 아니고 많은 시간이 이른 후에 606 A.D. 에 교회의 배교시에 그 머리 혹은 교황이라는 최초의 전체의 감독이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이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눈에 띄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나라, 즉 교회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종교적인 세계에 관한 한, 카톨릭 교회가 지배했다. 사실상 카톨릭 교회가 수백년 동안은 세계를 통치해 와서 그 다음 수백년 동안은 암흑시대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가 성경이 일반사람에 의하여 읽혀지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사제만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자격이 있으므로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바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말은 사제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에 카톨릭 교회도 세례와 악기 사용에 대한 가르침의 문제로 로마와 희랍분파로 나뉘이게 되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의 종교 회의등을 통해서 많은 다른 교리와 가르침을 더하게 되었다. 마침내 1500년대에 카톨릭 교회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케 되어 마틴 루터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자신인 한 사제로서 교회를 개혁하려 애썼다. 그러나 루터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되고 말았고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가르치고

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떠났다. 이러한 것으로 부터 종교개혁 혹은 개신교로 알려진 운동이 있게 되었고, 또 이것으로 부터 오늘날 교파주의로 알고 있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루터의 방향은 세계 여러 곳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시도에 불을 붙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

1700-1800 년대에 유럽과 미국에 분열과 혼란에 실증이 난 교파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점점 그들은 빠져 있던 오류로 부터 나와서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의 바람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교회로 돌아오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행했고 그 이후 순수한 신약성경 기독교에 대한 요구가 세계 곳곳에서 들리어 오고 수백만명이 사람의 가르침을 떠나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지침으로서 삼고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계 곳곳으로 나가 순수성을 그대로 지닌 교회가 이미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 폴란드 그리고 많은 다른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항상 존재해 왔듯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교회인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돌아가 조사해야될 필요는 없다. 교회의 모본은 성경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눅 8:11). 그리고 그 씨는 사도 시대에 만들어 생산해낸 똑같은 것을 오늘날에도 생산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들).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을 알

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설립된 이후 어느곳에나 존재하고 있었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마귀도 교회를 파괴할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며 마침내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의 교회이다.

[문 제]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시오.

1. 주님의 교회의 설립의 이야기를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2. 어느 도시에 설립되었는가?
3. 그 때에 몇명이 교회에 더해졌는가?
4. 복음이 전파된 다른 곳은?
5. 바울은 몇번의 전도 여행을 했나?
6.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가?
7. 바울이 사역한 결과로서 교회가 설립된 두 대륙은?
8. 제자들이 해외로 흩어졌을때 행한 일은?
9. 누가 주의 교회를 박해했는가?
10. 사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가?
11.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는가?

12. 바울은 마지막날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 경고했나?
13. 교회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시작됐나?
14. 606 A.D. 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15. 주님의 교회에 무슨일이 발생되었는가?
16. 왜 그 이후의 수백년을 암흑시대라고 부르는가?
17. 카톨릭 교회가 분열된 두가지 분파는 무엇인가?
18.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사람의 이름은?
19. 왜 교회개혁을 시도했나?
20. 이 일로 인해 일어난 대운동은 무엇인가?
21. 그들이 충분히 성경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는가?
22. 1700-1800 년대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23. 이들은 주의 교회의 모본을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오기 위해 새 교회를 시작했는가?

24. 똑같은 교회가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발
견되었는가?

25.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가?

제 13 과 오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2000 년전에 세워졌지만(행 2 장) 주님의 교회는 오늘날도 그당시 존재했던대로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 하고 질문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신약성경의 모본을 따라감에 의해서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와 똑같은 교회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까지 이르는 모든 시대를 더듬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 즉 교회가 결코 파멸되지 않고 영원히 서있으리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고있다(단 2:44 눅 1:33, 히 12:28). 이 말은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세상어디엔가 존재해 왔었다는 말이다. 이말이 사실이기 위해서 교회가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약성서의 말씀 속에 보존돼온 그 나라의 씨(눅 3:11) 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그씨가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내었다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다. 만일에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했다면 오늘날에도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신약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성경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면 주님의 교회는 신약성경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에나 존재할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따라갈 모본을 주셨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모본을 주셨다(창 6). 모세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과 함께 장막의 모형을 주셨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가라사대 삼가 모든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 8:5).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완전한 모형을 갖고 있다. 노아와 모세가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을 따르도록 기대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모형을 따라야 한다. 노아와 모세가 방주와 장막을 하나님의 모형에 따라서 지으므로 그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우리가 교회의 모형을 따를때 교회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더하거나 제함이 없이 존재하게 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계 22:18,19)

교회의 모든 특성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누가 세웠고 어느곳에 세웠으며, 언제 세워졌으며, 어떤 이름으로, 구성원의 이름, 어떻게 구성원이 되는지, 교회의 예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성경은 누가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를 사신값, 구세주 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교회가 무엇이며 그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모형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처럼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것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를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진리에 관해서 배우고 따르며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세우신 똑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씨는 같은 종류를 생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언제나 그렇게 해온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도 있고 도처에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할때 어느곳에서든지 어느때에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그만둘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기를 그치게 될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따르므로 성장하며 전파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열을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높인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는 유일한 교회이다. 그것은 교파도 아니며 교파등의 연합도 아니다. 개신교도 카톨릭교도 종파주의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다. 그것이 전부다.

주님의 교회는 지상의 머리나 지상의 본부를 갖고 있지 않다. 각 교회는 장로, 집사, 전도자, 교사, 구성원의 자체 지역 조직을 갖고 독립되어 있다. 성직자도 평신도도 없으므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적이 있었고 오늘날도 적이 있다. 인간의 종교적인 조직체는 그들의 예를 따르지 않는 교회에 분개하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대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분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오직 성경만을 따르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이름을 (웃)입고 있으나 반면 그들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이름을 (웃)입고 있음을 알수 있다.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무기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편벽되게 하며 우리를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수교는 헛된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 시대를 걸쳐 승리해 왔다. 이 세상의 모든 적들과 지옥의 마귀들도 주의 교회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주변에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숫적으로 적지만 구원받는 자는 적다는 사실이다(7:13-14). 그리스도께서는 한개의 교회만을 갖고 계실뿐이므로 그 한 교회로 돌아오실 것이다(엡 5:27, 요 14:1-6). 그는 그의 나라의 왕이시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져 교회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고전 15:24). 그는 한 신부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계 21:19).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입은 신부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느날 오실 것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그들을 뽑아버릴 것이다(마 15:13). 그들은 모아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우리의 간구는 순수한 신약성경 기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게 하자. 성경을 알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는 교회인 주님의 교회에 더해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일원이 되기를 격려한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막 16:16, 롬 10:10, 행 2:38).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교회에 더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행 2:47, 11:26)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가? 아무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나머지

생을 주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노력하며 보내기를 원하리라 믿는다.

[문 제]

다음 물음에 바르게 답하시오

1.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2. 그 교회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가?
3. 주님의 교회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세기를 걸쳐 교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아야 하는가?
4. 주님께서 그 왕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겠다고 말씀하셨는가?
5.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무엇을 말하는가?
6. 그 씨가 오늘날 무엇을 만들어 생산해 내고 있는가?
7.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8. 주님의 교회에 대한 모형은 어디에 있는가?
9. 주님의 교회의 특성이 어디에 밝혀져 있는가?
10.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냐 말씀하셨는가?
11.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하나의 진정한 교회를 알수있는가?

12. 오늘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을수 있는가?
13. 이 교회는 하나의 교파인가?
14. 이 교회는 지상의 머리 혹은 본부를 갖고 있는가?
15. 누가 교회의 적인가?
16.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가?
17. 교회는 여러 시대를 걸쳐 승리하였는가?
18.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가?
19. 우리의 간구는 무엇인가?
20.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를 설명하라.

※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1.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2. 오직 하나의 진정한 교회만이 있다.
3.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있다.
4.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5.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날 돌아오신다

성경적인 교회

저자 : 재이 · 씨 · 초우트

번역 : 조 규 상

출판 : **World Literatures Publication**

인쇄 : 할렐루야 인쇄소

발행 : 대중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3, 신일빌딩 403

전화 : 574 - 4 6 2 0